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반복과 중첩을 이용한
도자 Vessel 연구

A Study on the Ceramic Vessel Produced by
Using Repetition and Overlapping

2015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심 사 영

반복과 중첩을 이용한 도자 Vessel 연구

A Study on the Ceramic Vessel Produced by
Using Repetition and Overlapping

지도교수 이정석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심 사 영

심사영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약	i
표목차	ii
도목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반복의 일반적 고찰	3
1) 반복의 개념 및 특성	3
2) 반복의 표현	4
3) 행위의 반복	5
2. 중첩의 일반적 고찰	8
1) 중첩의 개념 및 특성	8
2) 중첩과 색	11
3) 중첩을 이용한 도자 작품사례	12
3. Vessel	14
1) Vessel의 개념	14
2) Vessel - 일상과 예술	14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6
1. 제작의도 및 방법	16
2. 제작과정	18
1) 매체와 기법	18
2) 슬립 바르기	22
3)유약과 소성	26
3. 작품해설	28
IV 결론	37

참고문헌	38
영문초록(ABSTRACT)	40

요 약

제 목 : 반복과 중첩을 이용한 도자 Vessel 연구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기증식, 자기복제를 가능케 하였으며 대량생산이 수월해짐에 따라 현대 대중문화는 점차 획일적이고 비개성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기계적 생산이 동일물의 증식으로 인간 활동의 산물이 가진 개별적이고 개인적의미를 사물에서 제거해버리는 속성을 갖는 반면, 인간의 수공(handiwork)적 제작방식은 인간의 손의 감각과 수고, 물리적인 행위의 반복으로 완성된다. 이로 하여금 제작자의 섬세한 손길의 반복과 시간의 응축이 사물에 깃들며 고유한 감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수공적 제작방식은 공예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현대의 문화적인 벽에 둘러싸인 인간을 선형적 자연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반복과 중첩의 표현으로 인간의 손의 감각을 강조하고 작가의 수행적 정신이 담긴 사물을 연구, 제작함으로써 시각적 아름다움과 수공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흔적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방식에 있어 행위의 반복과 중첩의 원리를 도입하여 Vessel(담겨질 수 있는 그릇의 형태)을 연구, 제작하고자 하였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연구의 접근방법을 서술하였다. II 장은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반복과 중첩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하고 행위의 반복이 표현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첩의 효과와 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Vessel에 대한 고찰과 현대의 예술적으로 변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표현된 기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III 장은 앞의 연구를 통해 단색화 작가들의 반복적 행위의 표현을 도예제작방법의 슬립캐스팅 기법과 접목하여, 석고몰드에 붓을 이용해 슬립 바르기를 반복하여 질감과 색의 중첩으로 손길의 흔적을 담는 제작방식과 효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반복과 중첩의 Vessel 연구를 통해, 이론적 이해와 재료의 물성, 도예 기법을 연결하여 슬립의 중첩으로 완성되는 Vessel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형식은 붓과 신체의 물리적 힘에 의한 우연적 질감이나 색을 이용하여 손의 감각적 표현과 과정의 흔적을 강조할 수 있었으며, 본인에게는 작업형식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가 손길의 흔적을 쌓아가는 작업을 통해 예술이 인간의 손길이 반복된 수행적 산물임을 환기시키고, 수공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표 목 차

<표 1> 중첩을 이용한 도자 작품사례 I	12
<표 2> 중첩을 이용한 작품사례 II	13
<표 3> 소지실험 I	19
<표 4> 소지실험 II	20
<표 5> 슬립의 비중	21
<표 6> Vessel의 형태와 구성	22
<표 7> 슬립의 색상	25

도 목 차

[도 1] 박서보 <묘법 No.237>	5
[도 2] 하종현 <09-101>	6
[도 3] 김태호 <Internal Rhythm 2014-9>	6
[도 4] 잭슨폴록 <넘버 26A>	7
[도 5] 노부히로 나카니시 <Layer Drawing-Cloud>	9
[도 6] 노부히로 나카니시 <Layer Drawing-Light of sunrise 1>	10
[도 7] 루시 리 <Footed bowl>	15
[도 8] 루시 리 <bowl>	15
[도 9] 뎀 보트 <Cone series 13>	15
[도 10] 김하운 <접시 피고지고>	15
[도 11] 슬립층 갈라짐 현상	18
[도 12] 초벌가루가 혼합된 슬립의 결과	21
[도 13] 아크릴 반구를 이용한 대형 몰드제작	23
[도 14] 슬립을 바르는 과정	24
[도 15] 색과 질감으로 표현된 반복 흔적	24
[도 16] 색의 중첩	25
[도 17] 초벌가루를 이용한 소성한 방법	26
[도 18] Setter제작과 소성계획	26

[도 19] Setter의 앞, 뒤 모양과 가마재임	26
[도 20] 전시전경1	35
[도 21] 전시전경2	35
[도 22] 전시전경3	35
[도 23] 전시전경4	36
[도 24] 전시전경5	36

작품목차

[작품 1] Repetition 1	28
[작품 2] Repetition 2	29
[작품 3] Repetition 3	31
[작품 4] Repetition 4	32
[작품 5] Repetition 5	33
[작품 6] Repetition 6	34
전시장 전경	3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생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효율적 대량생산방식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다. 고효율을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산하며, 자기증식을 거듭하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기증식, 자기복제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기계적 생산은 동일성의 통념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유일성이 상실되며 사물에서 인간 활동의 산물이 가진 개별적이고 개인적 의미를 제거해 버린다. 현대의 기계가 인간의 손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생산의 의미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수공 (handiwork)에 의한 산물들은 오랜 시간 인간의 창조욕구를 수행하며 획일화된 기계의 산물과는 달리 개별적 개성을 드러내며 인류의 삶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왔다.

인간의 섬세한 손길의 반복과 수고, 물리적 행위의 시간이 응축된 사물은 기성품과는 다른 고유의 감성을 가지며 산업사회에서 숨 막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서정적 감성으로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준다.

이렇듯 인간의 수공적 제작방식은 자연물인 소재가 주는 물성을 거스르지 않으며 문화적인 벽에 둘러싸인 인간을 선험적 자연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간의 손의 감각을 강조하고 작가의 수행적 정신이 담긴 사물을 연구, 제작하여 시각적 아름다움과 수공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공의 흔적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방식에 있어 행위의 반복과 중첩의 원리를 도입하여 그 특성과 개념을 살펴보고 Vessel이 가지는 조형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수공의 흔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연구,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슬립을 반복하여 바르는 과정의 중첩으로 수행성과, 시간성을 내포시킨 Vessel을 매체로 하여 그 의미를 함축한 일상적 사물을 통해 대중과 감성적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위의 반복과 슬립의 중첩으로 손의 감각을 강조하고 작가의 수행적 정신이 담긴 사물을 연구,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손의 감각적 가치와 반복의 미학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슬립 바르기를 반복하여 슬립의 쌓임으로 완성되는 Vessel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의 감각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위의 반복과 중첩의 효과를 선택하여 반복과 중첩의 특성과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작품들을 분석하여 작업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상적 사물인 Vessel을 표현매체로 하여 사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 표현이 담긴 오브제로서 감상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Vessel(담겨질 수 있는 그릇의 형태)에 대한 정의와 함께, Vessel이 가지는 조형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예술적으로 변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작품세계에서 표현된 기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셋째, 슬립을 붓을 이용하여 바르기를 반복하는 작업과정으로 슬립이 쌓여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미세한 선, 또는 물리적 힘에 의한 강한 선들로 수많은 손길의 흔적을 남겨내며 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반복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색을 중첩하여 작품에 변화를 시도하고, 깊이감을 주고자 하였다.

넷째, 소지의 실험을 통해 재료의 물성에 대한 이해와, 제작방법 연구를 통해 성형방법 및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제작방법을 제시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반복의 일반적 고찰

1) 반복의 개념 및 특성

반복은(repetition)은 어떤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¹⁾ 이것은 단어 자체가 일러주듯이 여러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반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요소나 대상 등을 두 개 이상 배열시켜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리듬감과 통일감을 나타나게 하는 원리이다.

예술가이자 이론가인 칸딘스키(Vassily Kandinsky)는 “반복이란 내적인 동요를 상승시키는 가장 강렬한 수단이며 동시에 단순한 리듬을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리듬은 어떤 예술에서든지 일차적인 조화를 꾀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²⁾ 반복은 비교적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미적효과를 줄 수 있어, 가장 널리 쓰이는 조형원리 중 하나로서 색깔이나 형태, 또는 텍스처(texture)나 방향, 각도 등의 요소를 반복 구성하여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 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리듬이 생기며,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반복이 많게 되면 힘의 균일 효과가 나타나서 균형감 있는 표현이 되며, 풍부함을 더해 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반복이 강조되면 전체적인 통일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반복은 보편적인 자연의 질서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디자인과 색채의 저자 그레이브스(Maitland Graves)는 “자연의 삼라만상에서 볼 때 반복은 자연질서의 기초적이며 보편적인 형태이며 밀물과 썰물, 초승달과 그믐달, 낮과 밤, 계절의 점진적인 변화 이 모든 형상은 리드미컬한 반복으로부터 부활과 멸망이라는 고대의 신비적인 주제로 영원히 반복되고 있다”³⁾고 저서에 기술하며 반복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의 질서와 흐름으로 강조하였다. 이렇게 시각적 변화를 가진 반복을 되풀이 하는 변화적인 반복은 비례나, 방향, 색채 등의 요소에 변화를 주

1) 한석우. (1991). “입체조형”, 서울미진사, pp.34.

2) 칸딘스키(Vassily Kandinsky). 譯차봉희. (1994). “점선면”, 서울열화당, pp.30.

3) 그레이브스(Maitland Graves). 譯배만실. (1995). “디자인과색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178.

어 조화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으며 구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연속적인 리듬감을 가져온다. 또한 형태의 반복은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 화면에 리듬감 또는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선정된 화면에 시간적 요소를 개입시키며, 동시에 화면이 외부의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⁴⁾

2) 반복의 표현

미술에서 반복은 과거에서부터 현대의 예술까지 끊임없는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반복의 표현이 이미 오래전부터 장식미술이나, 직물문양, 건축물의 외관 장식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져왔으나 순수미술에서 반복이라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은 20세기 현대의 미술가들이 반복의 방법이 가진 의미와 효과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다.

이러한 현대의 미술가에 의한 반복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경향으로 표현되어졌는데, 미래파(Futurism)에서는 움직이는 사물의 연속적인 모습의 재현을 위해, 옵아트(Op Art)에서는 시각적 착시 현상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은 자발적인 행위의 궤적으로, 팝 아트나 누보 레알리즘에서는 대량 소비사회의 이면을 드러내는 증후로, 또 미니멀 아트나 색면 추상 작가들은 작품의 물질성과 평면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의 방법을 사용하였다.⁵⁾ 국내에서 반복의 기법이 본격적으로 표현된 것은 70년대 초반의 단색회화 작가들의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어져왔으며, 작가들의 작업방법과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질 중의 하나는 일정한 형태의 반복성으로 이는 물질과 행위의 상호작용에 의한 물질의 비물질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물질과 비물질 세계의 경계는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과 정신의 합일 즉 주객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물질화돼 정신은 하나의 통합된 세계, 범자연주의 세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흡사하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⁶⁾

반복의 표현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개체의 반복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반복의 수행성을 강조하며 행위과정을 통해 자아성찰의 의미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개체의 반복을 통해 반복이 주

4) 윤난지. (1992).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3월, pp.106.

5) 윤난지. 위에 책, pp.107.

6) 조은영.(2003). "1970년대 단색화의 기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6.

는 조형적 가치와 순수한 시각적 효과에 의미를 두는 것은 반복이 계속될수록 한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일화성, 감상적인 내용성은 점차 잊히고 그것의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속성보다 강조 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반복을 수행적반복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복행위에 의해 작품에 시간을 개입시키며 관념적 공간으로서 작가자신과, 보는 이로 하여금 일종의 무위의 상태에 접근하게 한다.

3) 행위의 반복

행위의 반복은 반복의 연속성으로 인간의 이동에 의해 의식변화와 변위적 요소를 주게 되며, 이는 작품에 시간적 요소를 개입시키고 지각의 연속이나 경험의 관찰자로 하여금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하여 반복되는 공간사이에 미묘한 연속성을 부여하며 특유의 질서미와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심미적, 정신적인 면에서는 제작자나 보는 이로 하여금 신체적, 시각적 반복행위를 통해 명상 또는 무아의 경지에 접근하게 한다.

행위의 반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1970년대 초에 등장한 서정추상과 단색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화풍은 행위의 반복으로 화면에서 물질성을 탈피해 가는 독특한 방법으로 동양적 정신세계를 이끌어 내었다.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가 박서보는 1967년경부터 <묘법>연작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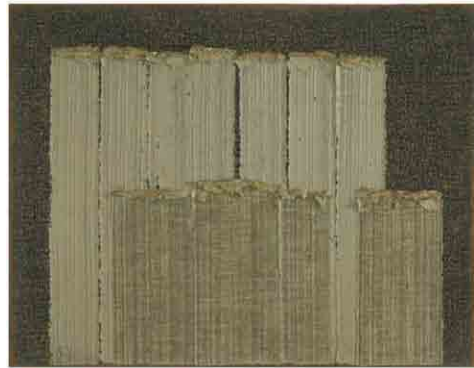


[도 1] 박서보, <Ecriture (묘법) No.237>,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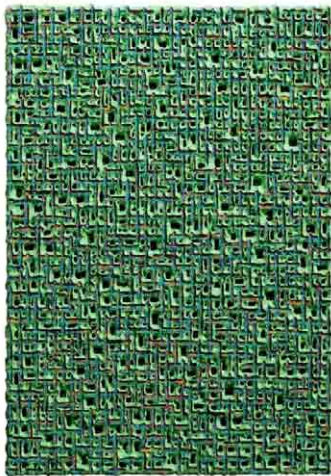
박서보(1931~)의 작품은 캔버스에다 유화물감을 칠하고, 그것이 채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연필로 반복해 선을 긋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선은 손으로 자유

롭게 그려진 것이나, 손의 반복된 움직임에 의해 화면은 깊게 덮어진다. 작가는 화폭과 붓이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화가의 손의 움직임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캔버스가 서로 화답하는 일종의 잠재적 생성의 마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⁷⁾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 박서보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회화 작품의 물리적 시각적 효과가 아닌 형태 또는 구성 등의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여 자기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하고, 자연의 부분으로 살기 위한 삶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또 다른 작가 하종현(1935~)은 겉쭉하게 갠 무채색 안료를 캔버스의 뒤쪽에서 물감을 밀어내고 밀려나온 유화물감을 다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행위의 흔적을 남긴다. 그의 작품은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행위가 융합된 상태 즉, 표면과 물질이 일체화된 평면구조를 갖는다. 그는 이 과정을 '자연스런 만남'으로 여기며 그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이를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종현은 물성과 행위라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작가 자신과 물질의 접합에 도달하는 무위 자연의 상태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물인 그의 작품은 자아가 내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도 2] 하종현, < 09-101, >, 2009



[도 3] 김태호,
<Internal Rhythm 2014-9>

김태호(1948~)작가는 단조로울 수 있는 모노크롬의 거대한 평면을 끝을 이용하여 표면 아래 감추어 졌던 무수한 색 선들과 그로인한 복잡하지만 규칙적인 격자무늬를 들어내는 작업을 한다. 수많은 색을 입히고 덮고 쌓아올린 다음 다시 깎아내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비워냄과 동시에 스스로의 현존성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많은 논평자들에게 철저한 장인정신의 소유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결코 우연성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과 실천에 의한 것임을 작품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7) 이일. (1998). “이일의 미술 비평일지”, 미진사, pp.47.

행위적 반복을 표현한 한국의 단색화 작가들의 경우 개념적인 단일정보보다는 일종의 반복되는 수행성이라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반복의 방법은 작가들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성의 방법을 지양하여 물질로서의 작품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물리적 의도로, 또는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일체감을 얻고자 하는 정신의 철저한 해방이나 절대적 자유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의 과정을 작품의 본질로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잭슨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의 액션페인팅에 내재된 오토마티즘(Automatism, 자동기술법)⁸⁾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잭슨폴록의 액션페인팅은 의식을 되도록 배제한 무의식의 행위를 중시하는 반면 이들의 행위에는 의지의 통제력이 개입되고 있다.



[도 4] 잭슨폴록, <넘버 26A>, 1948

이들에게 있어 반복적인 행위는 무의식의 상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명료한 깨달음의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가 격렬하거나 공격적인지 않고 절제된 자발성을 보이며 화면은 기록에 그치지 않고 미묘한 반복된 차이 그리고 시간을 함축한 명상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적 행위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은 작가마다 그 기법과 의도, 그리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작가가 일종의 무위의 상태에 접근한다는 점이며, 보는 이에게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⁹⁾

8) 자동기술법(Automatism)모델이나 사물의 형상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상태를 표출함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억압된 의식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광수. (2003). "광주비엔날레 2000-한일현대미술단면전 ", pp.290.

2. 중첩의 일반적 고찰

1) 중첩의 개념 및 특성

중첩과 반복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지만, 서로 상충하며 많은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 두 가지 기법이 어울릴 때 그 효과는 배로 나타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작품사례를 보면 반복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첩의 경우는 주로 반복의 방법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첩의(overlapping) 사전적 의미는 '겹쳐지고 포개어짐'을 뜻한다. 회화적으로는 콜라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건축에서는 동시성, 침투성, 다층, 투명성, 중첩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중첩은 여러 층이 겹쳐 있는 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반복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중첩은 결국 겹쳐진 형상이나,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첩되는 과정에 반복요소를 필요로 한다. 반복과 첩의 필연적 관계는 형태적인 면으로부터 통일된 패턴 안에 집중됨으로서 그 형태 관계를 견고하게 하며, 중첩의 특성인 연속성과 동시성, 시간성을 형성시킨다. 또한 중첩은 화면 속 공간에 반복을 통해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내며 변화와 시각적 깊이감을 가져다준다. 또한, 중첩은 대상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대상들을 통합하는 속성을 가진다.¹⁰⁾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선과 형태로 유동적인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때, 면들이 서로 접근하거나 가로질러 서로를 차단하여 공간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1) 중첩의 투명성

투명성(Transparency) 이란 일반적으로 유리와 같이 빛을 전부, 혹은 일부 통과시키는 물체가 갖는 시각적 성질을 일컫는 것이다. 어떤 물체의 물리적 성질과는 다른 시각적 투명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물체의 다중성을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형태구조 및 공간의 성충작용으로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 지는 실체적 속성을 의미하고 건축적 의미로는 대상을 가로지르는 가시적 공간전달 체계이다.

10)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譯김춘일. (1995), "미술과 시지각 ", pp.114.

라틴 어원으로서는 Trans(across)+Parent(see)넘어 보인다는 말로 현대 건축에서는 동시성(simultaneity), 상호관입(interpenetration), 중합(superimposed), 양면적 가치(ambivalence)등과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공간론을 중심으로 추상적 개념적 형태의 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투명성은 형상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연속적인 형태를 상상에 의해 추적하고, 부분적으로 가리어져 있거나 공제된 형태를 확장시켜 상상할 수 있듯이, 물리적 면에 의해 단절된 상상의 면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해주는, 서로 시각상의 방해를 주지 않고 상호관입 하는 투명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투명성이란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한 동시적 지각을 말한다. 공간은 단지 후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후로 흔들리며, 투명한 도형의 위치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다고 보이는 다의성을 지니고 있다.¹¹⁾



[도 5] 노부히로 나카니시
<Layer Drawing- Cloud>, 2005

(2) 중첩의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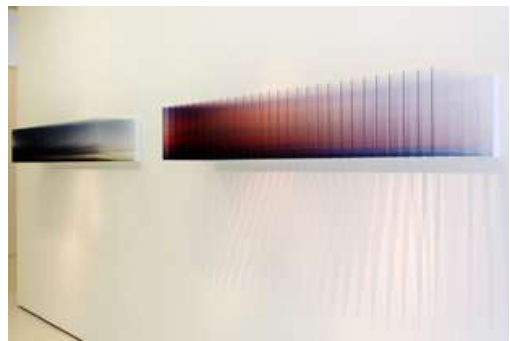
공간은 시간 변화에 따른 인간의 이동에 의해 의식변화와 변위적 요소를 주게 되는데 시간이라는 흐름의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 다 할지라도 공간의 인식은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의 2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할 때, 위치의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이에 따라 통로(path)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이러한 통로에 의해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에서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구성의 단위형태 중복배치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것은 각 공간을 이동하는 관찰자에게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하여, 연결되는 공간사이에 미묘한 연속성을 부여하게 된다.¹²⁾

11) 김현미. (1994). "중첩에 의한 공간 역동성 및 연속성의 표현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

12) 유명강. (2004).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 설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

(3) 중첩의 반복성

반복은(repetition) 어떤 사건과 사건사이, 형태와 형태사이, 공간과 공간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 반복에서 얻어지는 리듬감은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며 움직임을 일으키는 단위를 말한다. 또한 시각 요소를 어떻게 반복시키는가에 따라 각각의 느낌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반복의 특징으로는 단순, 교차, 진행으로 나뉘는데 단순반복은 수직이나 수평으로 움직임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자극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져서, 오히려 바탕으로 보이게 될 수 있다. 교차반복은 두 가지 교차반복의 효과로 큰 것과 작은 것을 교차 시켰을 때, 큰 것보다 작은 것의 리듬감이 더 빠르다고 느껴진다. 마지막 반복의 방법으로는 진행반복으로 그라데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진행운동을 위하여 진행방향 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반복 방식으로 화려한 느낌의 결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¹³⁾



[도 6] 노부히로 나카니시
<Layer Drawing - Light of sunrise 1>
2012

이외에 중첩의 특성으로는 명도성과 역동성이 있으며, 명도성의 명도변화는 재료를 다양하게 중첩시킴으로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착시에 의한 색이 아닌 중첩으로 만들어지는 색을 얻기 위함이며 겹쳐짐으로 인한 중첩의 단계로 설명된다.¹⁴⁾ 역동성은 공간지각에 있어서 발생한 불균형이나 긴장에 대해 흐르는 힘을 말하고 힘의 이동으로 야기되는 공간의 방향성과 시간성의 문제로 요약된다.¹⁵⁾

13) 오재근. (1991).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pp.70~71.

14) 양유정. (2003). "중첩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표현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

15) 김현미. (1994). "중첩에 의한 공간 역동성 및 연속성의 표현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9.

2) 중첩과 색

색채는 빛이 물체표면에 닿아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 또는 투과하여서 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물체는 고유의 색을 갖게 되며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공간은 모두 색으로 둘러싸여있으며 색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색은 빛의 물리적 현상과, 색을 보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우리의 몸과 정서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색채는 예술에 있어 작품에 표현적인 힘을 갖게 하는 중요한 조형요소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들은 색채를 통해 그들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중첩의 표현에 있어 색의 요소는 주로 색상, 명도, 채도를 조합함으로써 중첩의 상하위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색채의 표현적인 힘을 이용하여 색채가 단계적으로 중첩되어 가면 색의 깊이감을 얻게 되고, 이는 곧 공간으로 연결되며 중첩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얻어지는 공간감은 작품에 묘한 분위기를 주게 되며 감상자로 하여금 나름의 생각과 명상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렇듯 색의 중첩은 부분들을 가라앉히게 하는 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통합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화면에 공간감과 리듬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색은 상징성과 의미의 연상작용이 강하므로 중첩의 표현에서 색을 사용하는데 있어, 색의 상징에서 오는 편견을 주의하여야 한다. 색의 연상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절제된 색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무채색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색채사용의 절제는 표현효과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¹⁶⁾ 무채색의 사용은 회색이 의미하는 암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나타낼 위험성이 없진 않지만, 감성적 효과를 벗어나 형태 자체를 지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깊이, 거리, 부피, 그리고 질량 뿐 아니라 3차원적 형태의 지각과 공간적 관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뫼에르 솔라쥬(Pierris Soulages). (1990). 譯이일. "20세기 미술의 모험", 에이퍼인터내셔널, pp.86.

3) 중첩을 이용한 도자 작품사례

중첩은 반복을 통해 규칙적인 리듬감을 생성함으로써 작품에 변화와 깊이감을 가져다준다. 또한 대상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속성을 갖기에 작품의 다양한 변주를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조형원리이다.




이러한 중첩의 원리와 효과는 도자예술에서도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방법중의 하나로서, 중첩이 표현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를 선별해 그들의 작품특성을 분석하여, 수공의 흔적을 적극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작품 사진			
작가	Sasha Wardell	이민수	조신현
기법	다중캐스팅기법. ¹⁷⁾ 색이 다른 슬립을 주입했다가 따라내는 과정을 반복해 여러 색 층의 기물을 만들고 그 기물의 바깥면을 쳐내며 슬립의 다층을 드러낸다.	이장물레성형기법. ¹⁸⁾ 석고몰드를 물레에 고정시키고 슬립(이장)을 넣는다. 이후, 기벽에 슬립을 물레의 회전을 이용해 끌어 올리기를 반복하여 층을 만드는 기법이다.	캐스팅+ 조각기법 석고판에 색 슬립 바르기를 반복하여 섬세한 색 층을 만든다. 이후 두꺼워진 색 점토 판위에 드로잉 후, 잘라내어 연마한다.
작품 분석	규칙적인 반복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다층에 부분 면치기를 함으로써 수공의 흔적이 기술적으로 더해진다.	전통물레에서 성형하기 어려운 완벽한 수치의 원통형 등의 형태를 얇게 성형하기에는 비교적 수월하며, 완벽하게 절단되고 휩 없이 만들어진 기물의 완벽함과 숙련의 힘이 드러난다.	색채와 형태반복으로 색 하나만으로도 화려하고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변형된 캐스팅작업물의 특유의 정연함과 수작업의 고유함이 동시에 표현된다.

[표 1] 중첩을 이용한 작품사례 I

17)다중캐스팅 (Multiple casting): 몰드에 한 번의 슬립 주입으로 원하는 두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슬립을 주입하여 슬립의 층을 만드는 기법이다. 슬립의 다층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슬립 바르기, 슬립 흘리기, 반복적으로 drain casting 하는 방법 등이 있다.

18) 이민수. (2012). “이장물레성형기법연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작품 사진			
작가	박서연	Jeroen Bechtold	Miyashita Zenji
기법	슬립을 이용한 다중캐스팅기법. 석고틀에 일정량의 슬립을 재투입해 몰드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슬립의 다층을 얻어낼 수 있다. ¹⁹⁾	분무 캐스팅.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슬립을 몰드안에 분무한다. 슬립을 건조시킨 다음 몰드안에 슬립을 부분적으로 벗겨낸다. 그 안에 또 다른 슬립층을 주입하고 건조시킨다. ²⁰⁾	Colored Clay기법. 색 점토를 (또는 유약을) 매우 얇게 용기의 표면에 불규칙하게 덮어 중첩시킨다.
작품 분석	규칙적인 간격으로 촘촘한 슬립의 흔적이 표현되며 은은한 색변화가 연출된다.	다층과 투광을 통제, 의도할 수 있고, 슬립캐스팅의 전형적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현기법을 제시하였다.	얇게 덮인 색 층 들은 겹쳐서 진해지고, 흐려지고를 반복하며 희미하게 또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연의 일몰, 먼 언덕 등의 추상적 현상이 연상되며 자연의 순수함이 표현 된다.

[표 2] 중첩을 이용한 작품사례 II

도자예술은 작가의 정신과 손의 경험의 집적으로 나타나는 숙련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작업에 있어 반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것을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던 작가의 작품에서는 반복의 과정이 응축되어있다.

특히 위와 같이 중첩의 효과를 이용한 작품들은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예에서 중첩을 이용한 성형방법은 주로 석고몰드를 사용하는 슬립캐스팅 기법과, 전통적 물레성형 기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물레성형기법에서 이뤄지는 중첩표현은 단 시간에 다양한 성형은 가능하지만 주로 점층에 의한 구성을 통해 표현되며 원형 또는 대칭형 제작에만 유용하다.

반면, 슬립캐스팅 기법에서 이뤄지는 중첩표현은 규칙적이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며 색 층을 이용하여 다양한 변화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첩을 나타내는 작업방법으로 적합하다.

19) 박서연. (2011). “슬립의 흔적을 담은 그릇”,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Joseph.M.Doop. (1990). "Ceramic Monthly, May. USA", pp.27~29.

3. Vessel

1) Vessel의 개념

기(器)란 본래 음식이나 물건을 담고,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는 사물이지만, ‘기’의 형태가 내포하고 파생하는 가치와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이 시작하면서부터, 기능과 형태, 재료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기(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²¹⁾ 모든 문명권에서 다양한 재료와 용도로 만들어졌던 기(器)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려 주고, 문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기는 실용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때로는 조형적으로 혹은 미학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²²⁾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기(器)라는 사물 형식은 특히 도자예술분야와 가장 오랫동안 역사를 함께 해왔다. 도자예술은 고대 실용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기술과 표현양식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키며 발전해 온 것이다.

이렇듯 토기가 등장하기 전에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던 때부터,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류와 함께 해온 ‘기’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념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2) Vessel- 일상과 예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사물중의 하나인 Vessel(용기)은 인류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고안한 가장 기본적인 사물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의 형태는 실용적 기능을 목적에 두고 제작되기 때문에 기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형태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Vessel은 물리적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 일상의 도구로서 치부되며 그 예술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Vessel은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매우 익숙한 경험의 대상이며, 오랜 시간 인간의 삶과 함께 해온 기록물로서 역사성과 현재성을 상징하는 사물이다.

21) 백경원. (2013). "전 후 유럽 도예가들이 器를 바라보는 관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

22) 김문정. (2004). "후기 현대 도예의 탈근대주의적 시각과 기표해체에 관한 연구-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와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의 대비적 시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p.44.

Vessel은 20세기 모더니즘에 이르러 예술가들에 의해 새로운 표현 의식의 매체로 인식되었고, 창조적인 탐구를 위한 매체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예가들은 저마다 주관적인 예술관을 가지고 각기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 독창적으로 Vessel를 표현하였다.

20세기의 모더니즘 기(器)의 선구적 도예가인 루시 리(Lucie Rie, 1902~1995)는 전통적 기 형태의 심미성에 집중하여 실용보다는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Vessel을 만들었으며,[도7]



[도7] 루시 리 (Lucie Rie)
<Footed bowl>, 1980



[도 8] 루시 리 (Lucie Rie)
<bowl>, 1987

웜 보스트(Wim Borst)는 석기질 점토와 판 성형을 이용하여 vessel를 제작하지만 그의 작업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듯이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오히려 큐브, 원기둥, 혹은 구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재조합하는 공간으로서 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9] 김하운 작가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물에서 그 속성을 제거해 내적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10]



[도 9] 웜 보스트 (Wim Borst)
<Cone series 13>, 2007



[도 10] 김하운
<접시, 피고지고>, 2004

Vessel은 도자예술의 중심으로 음식을 담는 쓰임새뿐만 아니라 작가의 내적 표현매체로서 아름다움을 더하며 감상의 대상으로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Ⅲ. 작품제작 및 해설

1. 제작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위의 반복과 중첩의 표현으로 인간의 손의 감각적 표현을 강조하고, 작가의 수행적 정신이 담긴 사물을 연구, 제작함으로써 시각적 아름다움과 수공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의 삶에 있어 손과 신체를 움직이는 행위의 반복은 일상의 습관과도 같은 순환으로 주요하게 의식되지 않지만, 공예예술에 있어 수공의 반복은 작품의 본질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작가의 작품에서는 물질과 숙련된 손의 결합으로 반복의 과정이 축적되며, 원초적이고 전통적인 자연의 물질을 바탕으로 섬세한 손길과 시간이 응축되며 사물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행위의 반복은 작가의 표현 언어로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수작업의 '반복적 행위'를 '슬립의 중첩'을 통해 인간의 손의 감각을 강조하고, 시각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의 제작은 회화적요소인 붓과 그리기를 도예제작기법의 슬립캐스팅기법과 접목하여 일종의 다중 캐스팅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슬립을 붓을 이용하여 바르기를 반복하는 작업과정으로 슬립이 쌓여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얇고 미세한 선, 또는 물리적 힘에 의한 강한 선들이 쌓이며 수많은 손길의 흔적을 남겨낸다. 이로써 손의 감각과 반복된 수고를 통해 작품에 수행적 반복성과 시간을 내포시킴으로써 손길의 흔적이 주는 감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복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색을 중첩하여 작품에 변화를 시도하고 깊이감을 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일상적 사물인 Vessel을 표현매체로 하여 사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 표현이 담긴 오브제로서 감상의 대상의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처럼 반복과 중첩을 이용한 도자 Vessel 제작을 통해 반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중첩의 효과로 수공적 수행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슬립의 반복과 중첩을 이용한 도자 Vessel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화적 요소인 붓과 그리기를 도예제작기법인 슬립캐스팅 기법과 접목하여 석고몰드에 슬립 바르기를 반복하는 캐스팅방식으로 제작한다.

둘째, 반복하여 슬립을 바르는 캐스팅방식은 일반적인 캐스팅(drain, solid casting)과 슬립 주입방법이 다르므로 작업과정에서 층 사이의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작업에 적합한 슬립의 종류와 농도를 얻기 위해 소지실험을 진행한다.

셋째, Vessel의 형태설정에 있어 슬립의 반복과 중첩을 강조하기위해 단순한 형태를 기본형으로 하고, 제작방식의 특성상 기물의 안쪽에만 중첩과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물의 안 부분이 더욱 잘 보이도록 형태의 변화를 모색 한다.

넷째, 반복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위해 색을 중첩하여 작품에 변화를 시도하고 색의 선택에 있어서 강한 상징성이 있는 색상은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다섯째, 기물이 소성 시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Setter를 제작하고 기물이 비교적 얇기 때문에 시유에서의 파손과 강도를 고려해 초벌소성은 1000℃ 재벌온도는 1250℃ 산화소성 한다.

2. 제작과정

1) 매체와 기법

본인과 같이 제작자와 재료, 사물의 쓰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선택한 재료의 물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매체에 대한 실험과 연구는 재료가 가진 기능과 특성을 분리시키지 않고 다양한 표현방법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소통의 매개체로 선택하고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1) 실험된 소지

본 연구는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반복과 손의 감각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석고몰드에 붓을 이용하여 슬립²³⁾을 바르기를 반복하는 캐스팅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기법은 석고형 몰드를 손 물레 위에 얹고 붓을 이용하여 슬립을 발라주는 과정을 반복하며 의식된 시간이나 반복의 횟수만큼의 두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슬립을 덧바를수록 석고몰드의 수분 흡수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층 간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슬립의 연구이다.

소지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슬립용소지보다 물레용소지가 소성에서 휨이나 변형이 적기 때문에 실험의 기본소지를 대원도재의 D1으로 하여 함수량과, 첨가물에 따른 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몰드에서 기물의 탈 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후에는 캐스팅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슬립용소지중 현대소지사의 싼



[도 11] 슬립층 갈라짐 현상

크소지를 베이스로 하여 물과 해교제에 따른 슬립의 비중 실험을 하였고, 또한 몰드에서 슬립의 갈라짐 현상이 슬립이 마르는 각층의 시간차에 의해 발생하므로 몰드에서 슬립을 빨리 떼어 낼 수 있도록 첨가물(닥종이/펄프/지점토/초벌가루) 혼합하는 실험을 진행 하였다.








23) 슬립(Slip): 요업기술에 응용되는 광물분말의 진한 현탁액을 슬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입에 응용되는 것을 슬립, 그렇지 않은 것을 슬러리(slurry)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 화학대사전, (도서출판 세화), 2001

소지의 실험 I : 기본소지-D1

No	소지의 실험	성분 조합	효과 및 문제점.
1		① D1:100g ② 물:100g ③ 해교제:2 ④ 투명유 1250℃	몰드에서의 발림성이 좋아 붓에 따른 유연하고 부드러운 선들이 남겨지며 몰드에서의 탈 형도수월하다. 그러나 소성 후 행위흔적인 질감이 무더진다.
2		① D1:100g ② 물:70g ③ 해교제: X ④민트색유1250℃	 발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기포가 발생하며 슬림이 불규칙하게 쌓이며 몰드에서 탈 형에도 어려움이 있다.
3		① D1:100g ② 물:70g ③ 해교제:2 ④ 투명유 1250℃	 제작할 때 갈라지는 부분을 메워주며 완성하였다. 그러나 결국 2차 소성 후 다시 갈라져 나왔다.
4		초벌가루 첨가 ① D1:100g ② 물:90g ③ 초벌가루:10g ④ 해교제:2 ⑤ 투명유 1250℃	 슬림이 두터운 부분은 갈라지기를 반복하여 붓에 물을 발라 계속 메워주었다. 뒷면에 크고 작은 핀홀발생.
5		① D1:100g ② 물:140g ③ 초벌가루:10g ④ 해교제:2 ⑤ 투명유 1250℃	 핀홀이 발생하였고 핀홀을 타고 갈라짐이 발생하였다.
6		필프첨가 ① D1:100g ② 물:100g ③ 필프:2g ④ 해교제:X ⑤민트색유1250℃	 층 사이의 갈라짐은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페이퍼를 추가 하면 몰드에서 탈 형은 확실히 용이하다.

[표 3] 소지실험 I

소지의 실험Ⅱ: 기본소지- 슬립용 실크소지

No	소지의 실험	성분 조합	효과 및 문제점.
7		① 실크소지:100g ② 물:100g ③ 해교제:2 ④투명유 1250℃ 슬립을 몰드에 붓고 몰드를 굴림.	갈라짐 현상이 없고, 부드럽고 유연한 선의 표현이 가능하며 몰드에서 탈 형도 수월하다.
8		① 실크소지:100g ② 물:150g ③ 해교제:2 ④투명유 1250℃ 슬립을 몰드에 붓고 몰드를 굴림.	슬립이 굉장히 묽기 때문에 미세하고 촘촘한 슬립의 중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물의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기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쉽게 파손된다.
9		① 실크소지:100g ② 물:50g ③ 해교제:2 ④민트색유:1250℃	 몰드에서 슬립이 발림이 거칠게 되면서 기물의 바깥면에 기포가 생긴다.
10		지점토 첨가	몰드안에서 슬립이 쉽게 마르지 않고, 슬립이 끊어지면서 쉽게 부서짐. 슬립의 점력, 탄력이 너무 부족함.
		①실크소지:100g ② 물:50g ③ 해교제:2 ④ 지점토:7g ⑤ 투명유:1250℃	
11		다종이 첨가	슬립의 상태를 자세히 보면 얇은 털과 같은 섬유질이 보인다. 슬립에 색 안료를 넣어 몰드에 발라보니, 섬유질을 타고색의 번짐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성 후에는 미세한 번짐 현상 대부분이 사라지고 선과 면으로만 발색되었다.
		①실크소지:100g ② 물:50g ③ 해교제:2 ④ 다종이:3g ⑤ 투명유:1250℃	
12		초벌가루 첨가	 초벌가루를 넣으면 핀홀이 발생한다.
		①실크소지:100g ② 물:50g ③ 해교제:2 ④ 초벌가루 10g ⑤ 투명유:1250℃	

[표 4] 소지실험 II

소지 실험결과, D1소지에 다종이와 펄프를 넣은 슬립은 틀에서 기물의 건조를 빠르게 하였으나 층 사이의 갈라짐 현상은 개선되지 못하였고, 시판용 지점토를 섞은 슬립은 몰드에서의 발림성은 좋으나 끈기가 부족하고 쉽게 마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같은 소지의 초벌가루를 섞은 슬립은 석고몰드에 바르면 표면에 크고 작은 편홀이 생기는데, 이는 초벌가루가 흙의 유동성을 방해하고, 수분을 빼앗아 물을 더 필요로 하는 슬립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편홀의 개수는 슬립을 며칠 숙성 시키면 줄어들었지만, 슬립이 말라가면서 그 편홀을 타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 12]



[도 12] 초벌가루가 혼합된 슬립의 결과

슬립용 실크소지는 슬립의 비중이나 첨가물에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몰드에서의 탈 정도 수월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다층 사이의 갈라짐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함수량을 조절하여 질감표현을 하는데 유용했다. 캐스팅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가마다 사용하는 슬립의 농도나 내용물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부분 비중을 무겁게 해서 소성할 때 수축률이나 휨의 정도를 줄이고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해교제를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나의 작업에서는 슬립의 갈라짐 현상을 극복하기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반대로 슬립의 함수량을 높여 슬립의 발림성을 좋게 하고 몰드가 수분을 흠뻑 먹어 몰드 위 슬립이 서서히 건조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다층의 갈라짐 현상은 해결해 주었지만 소성 시 수축률이나 기물이 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로 몰드 위에서 그대로 건조시켜 탈 하였고,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소지는 현대소지사의 이장용 실크소지와 44-CF를 해교제로 사용하였다.

분류	해교제의 첨가 비율 (%)	슬립의 비중(g)
일반 캐스팅용 슬립	건조 흙의 0.25~0.3%	1000ml당 1760~1800g
연구 작품용 슬립	건조 흙의 0.03~0.04%	1000ml당 1400~1430g

(해교제: 세라스퍼스 44-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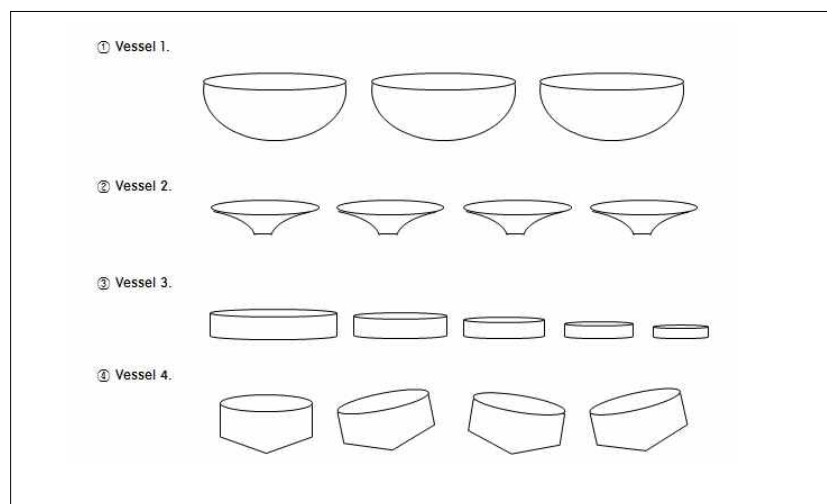
[표 5] 슬립의 비중

(2) 석고 몰드제작.

슬립캐스팅은 다공질의 몰드에 슬립을 부어 넣어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건조한 다공질의 몰드에 슬립을 부어 석고와 맞닿은 슬립으로부터 고비율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석고의 모세관 작용(capillary action)을 이용하여 몰드의 내부표면에 점토벽을 형성시켜 도자기를 만드는 원리이다. 이때 남겨지는 점토벽의 두께는 슬립이 몰드안에 머무른 시간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²⁴⁾ 도예작업에서 석고몰드를 만들 때는 주로 석고로 원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에 따라 유점토나, 원하는 형태가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의 재질로 나오는 기성품이 있다면 대체해서 쓰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2) - 1. Vessel의 형태 와 구성

초기작업의 작품형태는 반복과 중첩의 표현을 더 강조하고자 하였기에 형태와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Vessel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에 원을 절단한 반구 형태부터 제작방식의 특성상 Vessel의 안쪽에만 중첩과정을 나타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작업은 꼭짓점을 정 중앙에 두고 기울임을 주어 기물의 안 부분이 더욱 잘 보이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서 기물의 형태는 전통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Vessel 과, 기울임 Vessel 형태로 제작되었다. 4개의 Type으로 시리즈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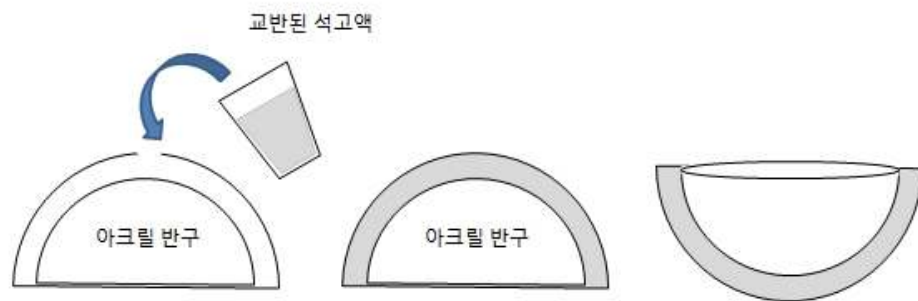
[표 6] Vessel의 형태와 구성

24) 샹샤워델(Sasha Wardell), 김순배 역, (2003), 「슬립캐스팅」, 도서출판 예경, p8.

(2) -2. 아크릴을 이용한 몰드 제작

슬립을 덧바르는 방식의 다중 캐스팅기법은 슬립을 다시 쏟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큰 기물을 만들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이러한 이점으로 반복과 중첩을 드러내는 화면을 크게 구성하여 시각적인 환기와 기술적 아우라를 주고자, 대형Bowl을 제작하게 되었다.

계획한 대형 볼의 크기는 지름이 60cm 나 되므로 석고몰드로 원형을 만드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크릴 반구로 지름 60cm와 55cm를 두 개 준비하여 작은 아크릴 구를 안에 넣고 큰 아크릴을 바깥에 덮은 후, 큰 아크릴 중앙에 구멍을 내어 갇혀진 공간에 혼합된 석고액을 부어 몰드를 완성하였다.



[도 13] 아크릴 반구를 이용한 대형 몰드제작

2) 슬립 바르기

연구 작품은 완성된 석고몰드에 붓을 이용하여 슬립을 바르기를 반복하여 붓질이 반복된 횟수만큼 두께를 형성시킨다. 이때 같은 것을 덧칠하고 중첩하는 행위의 반복은 슬립을 바르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나의 신체와 의식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붓질의 반복과 슬립의 중첩으로 화면위에 또 다른 선과 색을 올리는 과정을 거듭하며 작업이 종료된다.



[도 14] 슬립을 바르는 과정

2-1) 붓질의 반복.

도구가 손과 팔의 연장(extension)으로 기능하며,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도구는 손이나 수작업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도구는 손과 정신의 결합에서 나오는 여러 가능성의 매개체로 신체의 움직임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인체와 소통한다. 그럼으로써 손과 수작업의 개념을 강화시킨다.²⁵⁾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과정에서 도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였으며 붓이 섬세한 표현과, 힘의 강약에 따른 표현이 가능하고 손의 감각을 가장 잘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슬립을 붓을 이용하여 바르기를 반복하는 본인의 작업은 슬립이 쌓여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얇고 미세한 선, 또는 물리적 힘에 의한 강한 선들이 쌓이며 수많은 손길의 흔적을 남겨낸다. 이로써 손의 감각과 반복된 수고를 통해 감성을 전달하고 반복의 수행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붓질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슬립이 밀리고, 쌓임으로써 질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질감은 슬립의 반복에 있어 시간차를 두고 바르면 연속적으로 바를 때 보다 더 강하게 표현되었다.



[도 15] 색과 질감으로 표현된 반복 흔적

25)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2007). 허보운譯. “공예란 무엇인가”, 미진사, pp.109~115.



2-2) 슬립의 중첩

일정한 행위의 반복으로 진행되는 본 작업은 덧바르기라는 행위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시각적 표현 즉 중첩효과가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에, 색을 더하여 색의 중첩과 중복으로 행위 과정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색 자체가 갖고 있는 표현적인 힘을 이용해 변화를 창출하고, 색을 얹게 중첩함으로써 밀표현이 드러나 보이는 투명성을 확보해 작품에 깊이감을 주고자 하였다. 반복적이고 찰나적인 행위의 흔적은 붓의 곁에 따른 차이가 있는 반복을 형성하고 비 경계적인 중첩의 층을 만들며 조형공간을 형성한다. 작품에서 투명하게 겹쳐진 색들은 가려지지 않고 모두 보이면서 얇거나 깊은 공간감이 형성된다. 따라서 본인이 중첩을 표현할 때 이전에 색과 겹쳐진 모든 색들이 각각의 표현성을 갖고면서도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도 16] 색의 중첩

따라서 색을 선택할 때 이전에 채색된 색을 얹게 하여 다음 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채색된 색과 겹쳐졌을 때의 조화로움을 갖도록 하였으며, 색채가 가진 강한 상징성의 연상작용을 피하기 위해 무채색을 사용하여 색의 균형을 맞추는 절제의 장치로써, 사용하였다.

Color				
Orange	Blue	Green	Yellow	Gray
				

[표 7] 슬립의 색상

3) 유약과 소성

(1) Setter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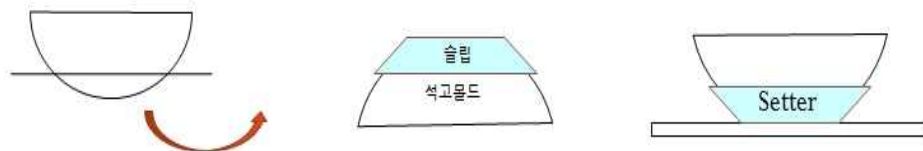
굽이 없는 볼(bowl)과, 굽이 뽕족한 꼭짓점 볼은 소성 시 휨이나 변형이 발생하므로 소성할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Setter가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같은 흙의 초벌가루를 알루미나와 섞어 언덕을 만들어 소성해 보았으나, 바닥의 처짐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도 17]

방법1.



[도 17] 초벌가루를 이용하여 소성한 방법

방법2.



[도 18] Setter 제작과 소성계획

두 번째 방법으로 반구 볼의 원형에서 굽 자리에 위치할 만큼의 높이의 석고몰드를 뜨고 수축률을 고려해 같은 소지의 슬립을 덧발라 setter를 제작하였다. 소성 시 두 개의 기물이 겹친 상태이므로 공기가 잘 빠져 나가도록 setter의 바닥에는 구멍을 내 주었고, 재벌소성 할 때에 setter와 vessel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알루미나를 발라 두 기물이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였다.



[도 19] 제작된 Setter의 앞, 뒤 모양과 가마재임

(2) 유약과 소성온도

기의 제작을 완성함에 있어 유약의 사용 유무는 실용과 비실용, 다시 말하면 사용되는 사물과 오브제로의 사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해도 작가가 사용하는 소지의 특성이나 색에 따라, 유약의 사용가능성과 종류는 달라 질 수 있다.

본인 또한 초기에는 투명유약과 색 유약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하는 행위의 축적으로 나타난 질감 표현이 유약이 사용됨으로써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의 소성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무유로 구워 본 기물은 흙의 질감이 원초적으로 느껴지며 미처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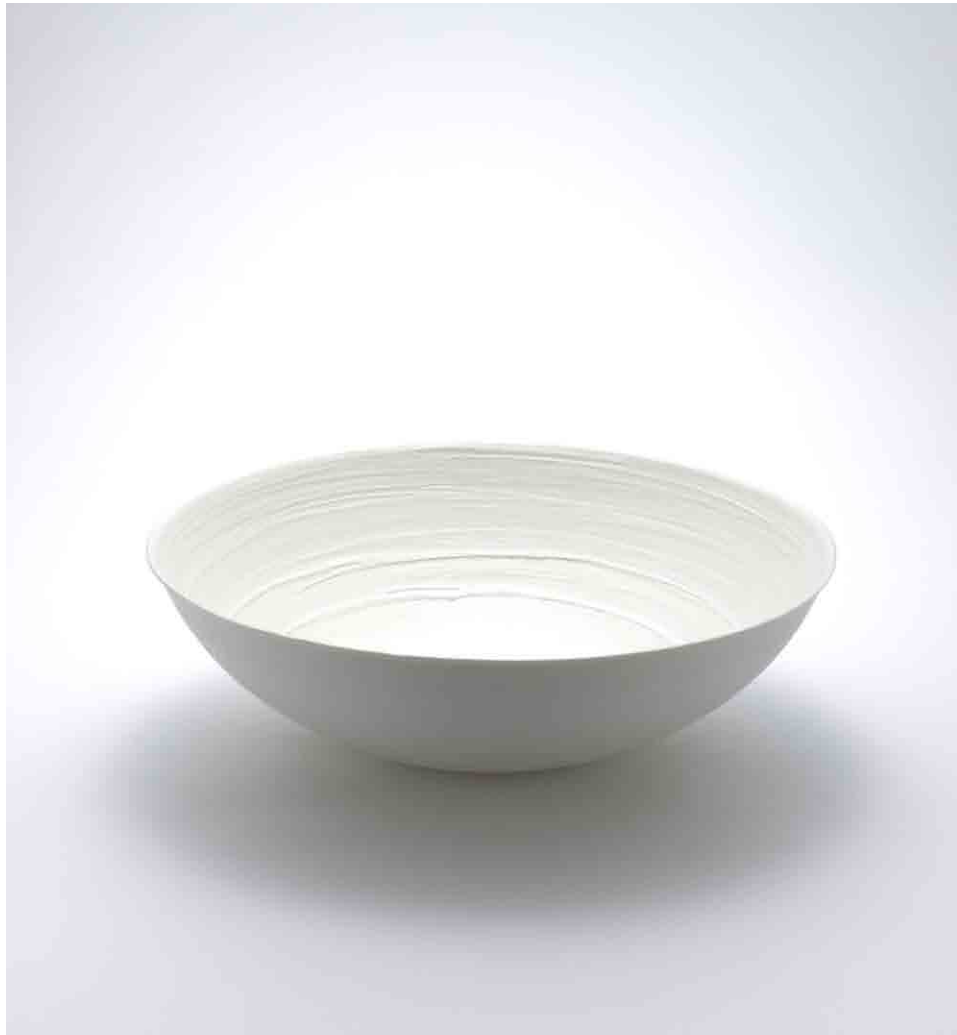
따라서 유약을 최대한 얇게 입히려고 노력하였고, 결과 투명매트유를 다량의 물에 희석하여 얇게 시유하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유약1 : 물9의 비율로 희석된 유약을 덩병 또는 스프레이 시유하였고 소성 시 Setter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기물의 바깥쪽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성 후 연마하였다.

소성은 1차와 2차소성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기물이 비교적 얇기 때문에 시유과정에서의 파손을 고려하여 1차소성을 1000℃에 고온 소성하였고, 2차 소성은 1250℃에 산화소성 하였다.

1. 작품해설

[작품 1] Repetition 1

슬립을 덧바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그 시간을 드러내며 기록을 남겨내었다. 그 기록들은 희미하게, 또는 선명하게 드러나며, 유연하고 미세한 선들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작품은 단순하고 보편적인 기 형태에 희미한 선과 선명한 선이 서로 겹치며 선적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 1차소성은 1000℃ 하였고 기물의 안쪽은 투명매트유를 얇게 스프레이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소성 후 기물의 바깥 면은 연마하였다.



[작품 1] Repetition 1

480x480x130mm / Casting / Porcelain

[작품 2] Repetition 2

단순한 형상을 크기에 차이를 주고, 점층구성 하여 반복과 중첩을 최대한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의 형태에 붓 선을 이용해 색의 중첩에서 오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첩으로 인한 시간의 차이와 공간감을 의도하였다.

1차소성은 1000℃ 하였고 기물의 안쪽은 투명매트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소성 후 기물의 바깥 면은 연마하였다.



[작품 2] Repetition 2

Ø150,210,270,330,390 x 70mm / Casting / Porcelain

[작품 2] Repetition 2.

top view



[작품 2] Repetition 2

Ø150,210,270,330,390 x 70mm / Casting / Porcelain

[작품 3] Repetition 3

색의 변화를 점층(Gradation)적으로 변화시켜 원색에서 서서히 흰색(무색)으로, 흰색(무색)에서 원색으로 슬립의 다층마다 색을 별도로 배합하여 단조롭게 표현될 수 있는 슬립의 중첩에 변화적 요소를 주었다.

1차소성은 1000℃ 하였고 기물의 안쪽은 투명매트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소성 후 기물의 바깥 면은 연마하였다.



[작품 3] Repetition 3

Ø150,210,270 x 70mm / Casting / Porcelain

[작품 4] Repetition 4

슬립을 바르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어 반복을 거듭하며 색의 중첩에 의해 이미지가 생성되고 소멸되기도 하는 화면에 두께와 흔적을 남겨낸다. 이러한 흔적은 흙의 물성과 특유의 질감이 갖는 표현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응축되어있음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발한다. 1차소성은 1000℃ 하였고 기물의 안쪽은 투명메트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소성 후 기물의 바깥 면은 연마하였다.



[작품 4] Repetition 4

Ø320 x 70mm / Casting / Porcelain

[작품 5] Repetition 5

색채가 단계적으로 중첩되어가면서 반복과 중첩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더불어 색의 중첩과 밑바탕이 비치는 중첩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작품에 깊이와 공간감을 주고자 하였다. 1차소성은 1000℃ 하였고 기물의 안쪽은 투명매트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2차소성은 125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소성 후 기물의 바깥 면은 연마하였다.



[작품 5] Repetition 5

Ø320 x 70mm / Casting / Porcelain

[작품 6] Repetition 6

기물의 바닥면 중심부를 기점으로 기울어지는 구조를 가진 형태를 통해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반복의 흔적들을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소성은 1000℃ 하였고 기물의 안쪽은 투명매트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2차 소성은 1250℃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소성 후 기물의 바깥 면은 연마하였다.



[작품 6] Repetition 6

Ø165 x 75mm / Casting / Porcelain

전시 전경



[도 20] 전시전경 1



[도 21] 전시전경 2



[도 22] 전시전경 3



[도 23] 전시전경 4



[도 24] 전시전경 5

IV. 결 론

예술에 있어 행위의 반복은 주로 반복을 통하여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무위의 경지를 경험하고 전달하기위해 사용되지만 본인의 작업에 있어 행위의 반복은 반복적인 수공적제작방식으로 인간의 손의 감각을 강조하고 작가의 수행적 정신이 담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슬립을 몇 번이고 덧칠하는 행위와 슬립의 중첩효과로 차이가 있는 반복을 형성시키고 손길의 흔적이 질감과, 색으로 녹아든 사물을 제작함으로써 시각적 아름다움과 수공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반복과 중첩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작품사례를 분석하여 회화적 요소인 붓과 그리기를 도예제작기법인 슬립캐스팅기법과 연결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슬립을 반복하여 바르고 중첩하는 과정에서 붓과 신체의 물리적 힘에 의한 우연적 질감과 색의 중첩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표면적인 변화를 시도 할 수 있었다.

둘째, 제작과정에 있어 슬립을 덧바르는 과정에서 다층간의 갈라짐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를 해결하기위해 첨가물과, 함수량에 따른 소지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발림성이 좋으며, 갈라짐이 적은 슬립의 비중을 찾을 수 있었고, 소지 실험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성 과정에서 오는 기물의 변형이나 휨의 문제점을 실험과 setter제작으로 극복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셋째, 감각적 표현과 흔적을 강조하기위해 Vessel의 형태는 단순한 형태로 구성 하였지만, 작품의 형태가 Vessel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작업에서 작품의 형태와 구성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도자예술은 사고하는 손의 창작이며 행위이다. 작품은 손놀림 속에서 구체화 되고 반복된 신체작용에 의해서 감각적 형상을 이뤄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식과 의지를 함양한 행위의 반복은 제작자인 본인에게 작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몰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작업의 형식을 형성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제작에 있어 손놀림의 반복과 슬립의 중첩으로 기계적인 반복이 주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손길이 겹겹이 쌓여 완성되는 연구 작품을 통해 예술이 제작자의 손길이 반복된 수행적 산물임을 환기 시키고, 수공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한석우. (1991). “입체조형” , 서울미진사, pp.34
- [2] 칸딘스키(Vassily Kandinsky). 차봉희譯. (1994), “점선면” , 서울열화당, pp.30
- [3] 그레이브스(Maitland Graves). 배만실譯. (1995), “디자인과 색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178
- [4] 이일. (1998). “이일의 미술 비평일지” , 미진사, pp.47
- [5] 오광수. (2003). “광주비엔날레 2000-한일현대미술단면전” , pp.290
- [6]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김춘일譯. (1995). “미술과 시지각” , pp.114
- [7] 오재근. (1991).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 미진사, pp.70~71
- [8] 삐에르 솔라쥬(Pierrs Soulages). (1990). “20세기 미술의 모험” , 에이피인터내셔널, pp.86
- [9] 샤샤워델(Sasha Wardell). 김순배譯. (2003). “슬립캐스팅”, 도서출판예경, pp.8
- [10] 하워드 리사티(Howard Risatti). (2007). 허보윤譯. “공예란 무엇인가”, 미진사, pp.109~115.

학위논문

- [1] 조은영. (2003). “1970년대 단색화의 기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6~29
- [2] 김현미. (1994). “중첩에 의한 공간 역동성 및 연속성의 표현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
- [3] 유명강. (2004).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 설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
- [4] 양유정. (2003). “중첩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표현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7
- [5] 백경원. (2013). “전 후 유럽 도예가들이 器를 바라보는 관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

- [6] 김문정. (2004). “후기 현대 도예의 탈근대주의적 시각과 기표해체에 관한 연구-버나드 리치(Bernard Leach)와 피터 볼커스(Piter Voulkos)의 대비적 시각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p.44
- [7] 이민수. (2012). “이장물레성형기법연구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박서연. (2011). “슬림의 흔적을 담은 그릇”,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저널아티클

- [1] 윤난지. (1992). “형태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3월, pp.106~107
- [2] Joseph.M.Doop. (1990). "Ceramic Monthly, May. USA", pp.27~29.

Abstract

A Study on the Ceramic Vessel Produced by Using Retetition and Overlapping

Shim, Sa Young

(Supervisor Lee, Jung Suk)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enabled self-propagation and self-cloning and made mass production easier, the modern pop culture has taken on increasingly uniform and non-distinctive tendencies. This mechanical production has the property of ridding the objects of the individual and personal meanings of the outcomes of man's activities due to the propagation of the same objects while man's handiwork-production method is completed with the sensation of his hands and the repetition of his endeavors & physical actions. By doing so, the repetition of the producer's delicate touch and the condensation of time reside in the object and give his inherent sensibility to it. This handiwork-production method is the analogous sensibility unique to handcraft, which has the meaning of serving as the medium linking man surrounded by the walls of the modern culture and transcendental nature.

This study aims to put emphasis on the sensation of man's hands as the expression of repetition and overlapping and rediscover the visual beauty and values of the handcraft by looking into and producing the object that carries the artist's performative mind. Towards this end, the Vessel (i.e., the form of the vessel to put things in) was studied and produced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the repetition and overlapping of the actions in the production method to make sure that the traces of the

handcraft could be effectively expressed.

In Chapter 1: Introduction, the study purpose, scope, and method were described.

In Chapter 2,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petition and overlapping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were reviewed and the cases in which the repetition was expressed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the overlapping and the colors were examined and the reviews on Vessel and the cases where it was artistically transformed in modern times were investigated to explore the various meanings of the spirit expressed in the world of their works.

Chapter 3 described the effects of the production method in which the traces of the artist's touches were captured through the overlapping of the textures and colors by applying the expression of the repeated actions of the monochromatic painting artists to the slip casting technique of the ceramics production methods and by repeating the slip application in the plaster mould with the brushes. A vessel that is completed by means of the overlapping of the slips could be produced through the vessel research by linking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and pottery techniques. This production style could highlight the traces of the expression and process of feeling of the artist's hands using the random textures or colors caused by the physical force of the artist's brush and body and thus provided the artist with an important opportunity to form the production styl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art is the performative product to which man's touches are repeatedly applied through the efforts to pile up the traces of the touches and rediscover the handiwork value